

## 거울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하나님 형상 이해

이 정 석

(국제신학대학원)

교회는 항상 새로운 문제와 직면하고 있으며, 신학자는 그러한 문제에 답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권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도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가 지적하듯이, “칼빈의 하나님 형상관은 기계론적 사고 방식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반성을 요구한다”. 생명공학·의학·사이버 공학 등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신의 창조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 인간관을 부정하는 기독교 인간관의 중요성이 어느 시대보다 부각되고 있어서, 칼빈의 형상론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유의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최근에 신원하 교수는 뇌사가 장기 이식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본 연구는 권교수가 작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작성한 논문으로서, 특별히 풍부한 칼빈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헨리 미터 칼빈연구소에서 연구한 관계로, 이 주제에 대하여 폭넓은 자료를 사용하여 그 동안의 연구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신학계에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칼빈의 형상에 대해 연구한 W. Niesel, T.H.L. Parker, D.T. McIntosh, W.E. Stuermann, J.M. Kennedy, D. Cairns, H.A. Oberman, A.A. Hoekema, R. Prins, A. Peters, T.F. Torrance, 그리고 A.H. Esser의 저술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는데, 특히 “칼빈의 하나님 형상관을 칼빈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한” Torrance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조감도를 보고 평가한” Esser에게 의존하였다. 또한 철저한 원문 분석과 영역 및 독역 대조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2. 본 연구는 칼빈의 하나님 형상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Obermann의 지적에 착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칼빈은 최초의 신학 작품인 Psychopannychia를 쓴 1534년(이전)에 중세 카톨릭의 존재론적 패러다임에서 심리학적 혹은 관계론적

패러다임으로 신학의 방법론을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칼빈의 하나님 형상 이해는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물론, 칼빈은 카톨릭의 신형상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과연 그와 같이 배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는 더 논의해 볼 주제이다. 존재론과 관계론은 서로 배타적이기보다 보완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 논문에는 이런 대립적 구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칼빈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론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이것은 관계적 차원으로 설명해야 분명해질 것 같다.” “관계론적 형상론을 부정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권교수가 실제로는 존재론과 관계론적 이해의 양면을 모두 포용하고 있으며, 배타적으로 보이는 표현들은 단지 관계론적 이해를 강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이런 존재론적 개념으로만 칼빈을 본다면 그를 불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칼빈이 이 개념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가 관계론적인 형상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는 칼빈의 신학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와 보완의 논리가 혼재함으로써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참고로 동일한 접근을 시도한 Brian A. Gerrish도 “The Mirror of God’s Goodness: A Key Metaphor in Calvin’s View of Man”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 권교수가 조명하는 칼빈의 관계론적 하나님 형상론이란 무엇인가? 그는 타락이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칼빈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어떤 실체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방향’ (orientation)에 있어서 잃어버림을 당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 아담 속에 존재한다는 어떤 형상이 상실되고, 다시 밖에서 상실된 것이 그의 실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 속으로 악한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는 인간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 해석에서 중요한 관건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할 때 아무런 내면적 변화가 없었다는 의미인가? 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 …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또는 본체를 반영하는 장비에 불과한가?”라고 묻고, 후자를 지지한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논한 기독교강요 I. xv. 4에서 하

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전에는 완전한 인간 본성이었으나 타락 이후에는 “혼란되고 절단되고 병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불멸성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 개념을 인간이 신을 닮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로 이해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이 신을 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을 철학적으로 교묘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인간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남아 있으며, 권교수는 이 점을 Niesel의 *similitudo* 개념으로 설명한다. 니젤은 칼빈이 부정한 첼렘과 더무트, *imago*와 *similitudo*의 구별을 수용하여 칼빈이 말한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로 이해하고, “상실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보는 *similitudo*를 “인간이 바른 방향으로 향함”으로 보았다. 이것을 권교수는 관계적 형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비록 “칼빈이 직접 *similitudo*를 정의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칼빈의 인간론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정상화”로서, 오버만이 말한 “다시 방향을 찾는 일”(re-orientation)이다. 그것은 아마도 칼빈이 말하는 “지성의 조명, 마음의 바름, 그리고 모든 지체의 건강”(Iucementis, cordis retitudine, partiumque omnium sanitate, I. xv. 4)일 것이다.

실로 권교수가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론적, 즉 기계적으로 이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정상적인 인간성을 주장하는 현대의 자율적 인간관이다. 그는 역동적인 관계론적 이해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음을 통해 영혼과 몸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다”는 인간관을 통하여 한순간이라도 이 관계가 상실되면 인간의 고귀성이 상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적 이해는 실로 중대한 실천적 메시지를 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칼빈이 그러한 위기적 견해를 가졌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4. 권교수는 본론을 시작함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칼빈의 하나님 형상론을 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순서는 그의 논문을 구성하는 결정적 방법론이다. 그러나 순서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는 첫번째 관점의 질문을 논의 없이 즉각적으로 단정한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본체를 반영하는 실체”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논리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결과 인간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연 만물과 성경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그

가 인정하는 대로, 칼빈은 결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자연과 다른 독특성과 우월성을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만일 하나님을 반영하는 모든 거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될 것이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지 그 존엄성이 약화될 것이다. 이것은 방법론상의 문제로서 제제 없이 출발하기 보다 결론을 먼저 내리고 본문을 읽은 결과가 가져 온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5. 권교수는 콜부르 학파의 에드워드 뵐과 칼빈을 전공한 학자로서, “버첼렘”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를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언급되었으나, 주제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리고, 반사 채널에 대하여 “모든 칼빈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로 “수직, 그리고 수평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간적 차원”을 추가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새로운 제안은 문화·명령·역사·그리고 소망과 연관되었는데, 심지어 콜부뤼제와 에드워드 뵐도 간과한 이 차원이 칼반에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다음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그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기대한다.